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

- 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

정 광 중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지리적 현상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일정지역이 지니는 자연적인 환경이 서로 다를 때, 그 위에 가시적으로 전개되는 인문현상도 균등하거나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현상 중에서도 특히 인문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소, 소밀, 강약관계 등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점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사항은 아니다.

지리적 현상이 지역 내에 투영되는 존재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것이 특수성을 띠는 보편성을 띠는 지리적인 의미의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서술을 통하여 구명되어야 하는 것은 지리학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연구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리학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면,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가시적으로 확연히 눈에 주목받는 지리적 특수성만을 전제로,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원리 및 법칙의 해명에만 급급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지역 내에 지리적 현상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분 포상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미미하거나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되었다. 지역지리학이 지리학 연구의 심화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제외되고 사장되어버린 지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거론되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필자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은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나아가 전체중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지리적 현상에 불과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취락(마을)단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떨 수도 있는 지리적 사실을 거론하여,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현지에서의 청취조사와 고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세지지의 접근형식에 의거하였다¹⁾. 즉, 소지역내의 소금생산과 중단이라는 경제활동의 한 단면에 대하여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서술해 가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금의 생산과정, 판매, 소금생산의 중단에 따른 농어가에의 파급효과를 중요한 관련사실로 판단하고,

1) 尾崎扁四郎, 1979, 微細地誌-地誌學・社會科教育學の原點-, 二宮書店(日本:東京), 201p.

이들을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논의의 주된 골격은 소금의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각종 제염도구, 소금의 판매방법 및 판매지역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소금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대량생산이나 교통기관이 미비했던 과거로 소급할수록 중요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빈약한 왕실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었던 점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기아 시에 구황염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소금의 생산과정, 염전형성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혹은 지역별 제염법 등과 관련되는 많은 논고가 축적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역사학적 시점과 지리학적 시점의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역사학적인 시점에서 다루어진 것으로서는 고승제²⁾, 김호종³⁾에 의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으로, 유승원⁴⁾, 최성기⁵⁾, 박병선⁶⁾, 박용숙⁷⁾의 연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일정 시기나 또는 전시기를 통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과, 염전의 소유 및 관리, 염전의 형태, 경영구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염전성격의 변화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염전의 실태 파악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있으나,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성을 조명하는 단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지리학적인 시점의 연구 가운데 개척자적인 역할은 우선적으로 한인수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도 염전이나 소금생산에 관한 소고형태의 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리학과 관련 학생들의 졸업논문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논리적인 구성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한인수의 연구는 1936년에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매사(제3권)의 내용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말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염전의 조성과정과 소금생산의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일기⁹⁾는 소금생산방식 중에서도 전오염의 제조방법에 대해 자연조건이 서로 다른 서해안 지역(인천, 남

2) ① 고승제, 1955, 이조염제의 기본구조, 서울대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3집, pp.317-322.

② ———, 1956, 이조염업의 경제구조, 서울대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4집, pp.361-398.

3) ① 김호종, 1984, 조선후기 제염에 있어서 연료문제, 대구사학, 제26집, pp.147-175.

② ———, 1986, 조선후기 어염의 유통실태, 대구사학, 제31집, pp.109-138.

③ ———, 1988, 조선후기의 염업경영실태, 역사교육논집, 제12집, pp.101-139.

4) 유승원, 1979, 조선초기의 염간, 한국학보, 제17집(겨울호), pp.30-59.

5) 최성기, 1985, 조선시대 염전식 자염-동해안(영해)을 중심으로-, 안동문화, 제6집, pp.57-83.

6) 박병선, 1984, 조선후기 궁방염장연구-17, 18C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박용숙, 1977, 조선초기의 염업고, 부산대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6집, pp.361-377.

8) ① 한인수, 1977, 한말 이후 일제하의 우리나라 제염업의 실태, 응용지리, 제1권 제1호, pp.34-53.

② ———, 1977, 우리나라 제염업의 전개과정 소고, 청과 노도양박사 고회기념논문집, pp.151-174.

9) 김일기, 1991, 전오염 제조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호, pp.1-18.

양, 서산, 부여, 영광)과 동해안 지역(강릉, 삼척, 울진)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 는 천일염의 제조과정이 비교적 잘 알려지는데 반해, 조선시대 말기까지 우리나라 주요염전에서 행해졌던 전오염의 제조과정에 대한 구멍이 미진함을 전제하고, 현지조사와 고증을 통하여 조선시대에 제염업이 가장 활발하였던 사례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제염방법의 지역적 차이를 해명하였다.

한편, 김재완¹⁰⁾은 연구대상기간을 조선후기에 한정시키고, 크게 경기만 지역의 남한강 유역 및 북한강 유역이라는 두 지역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지역 간 소금생산과 유통권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이 인접한 수운을 이용하여 어떻게 운반되고, 또한 하천변에 위치한 여러 포구취락을 기점으로 소금의 유통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당시 경기만 지역의 소금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연구와는 별도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천일염 생산지에 대한 입지특성이나 지역별 성격을 논의하는 연구들도 있다. 즉, 정명옥¹¹⁾과 서일석¹²⁾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들 연구는 천일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하에서 근년에 잇따른 대규모적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염전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배경 속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천일염의 형태적 특징과 규모 또는 그에 관련되는 가옥과 제반시설들의 구성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요 논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정광중·강만익¹³⁾도 고립된 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는바,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시점에서의 형성배경이나 공간적 시점에서의 염전특성에 대한 분석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처럼, 지리학적 시점에서의 연구는 염전의 지역적 입지, 생산과정과 유통, 염어의 특성 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강조되는 시간적 변화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부족하며, 아울러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배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전술한 지리학적 시점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두 가지 측면을 보완하는 형태로써 논의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작은 취락내의 염전조성 혹은 소금생산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인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정도와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II. 구염마을의 제염역사와 제염지로서의 특징

1. 구염마을의 제염역사

10) 김재완, 1992, 조선후기 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19호, pp.29-47.

11) 정명옥, 1986, 경기만의 천일염제염업-남동, 소래 염전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서일석, 1986, 남양만 간척지의 염전이용과 취락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정광중·강만익, 1998,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종탈·일과·구염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18호, pp.351-379.

구엄마을은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애월읍에 위치하며, 마을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동읍소속의 하귀마을과, 제주시의 외도마을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동읍의 중엄, 신엄, 고내 및 애월마을로 연결된다. 구엄마을은 예로부터 '엄장포' 혹은 '엄쟁이'라 불려 왔는데, 여기서 '엄'은 다름 아닌 '鹽'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엄(嚴)'이 '鹽'에서 변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⁴⁾. 그러므로 1950년 이전까지도 구엄마을의 사람들은 소금을 팔러 다닌다고 하여, 인근 취락에서는 '소금장수 엄쟁이 사람'으로 통하였으며, 지금도 주변 마을의 노년층에서는 구엄리를 '엄쟁이'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문헌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남사록』¹⁵⁾이나 『남환박물』¹⁶⁾ 등의 고문헌을 보면 제주도내의 염전조성에 대한 배경이나 염전의 분포와 관련되는 단편적인 내용들이 발견된다. 김상헌의 『남사록』(1653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최초로 염전을 조성하게 된 것은 강려 목사¹⁷⁾의 조언을 바탕으로 반도부로부터 제염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제염지에 대해서는 '自別方之旌義 其間有鹽田數處...'¹⁸⁾라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북제주군 구좌읍에서 남제주군의 성산읍 및 남원읍 사이에 염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제염은 도내의 동부지역에서 시작된 후에,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그 시기는 대략 16~18C로 추정된다¹⁹⁾. 따라서 구엄마을의 제염도 빠르면, 이 시기에 해당되거나 혹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 구엄마을의 제염상황을 다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0년에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발간한 『한국수산지』(제3집)에는 "구엄마을의 부근은 연안이 광대하고 평탄한 암석위에서 이토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작은 제방을 만들어 증발지로 하고, 해변에서 가까운 증발지에 해수를 떠올려 차례대로 그것을 상부의 증발지로 옮긴 후에, 마지막 증발지에서 농도가 20℃ 이상에 달했을 때 전오한다"²⁰⁾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의 초기에는 해수를 함수로 만든 다음, 그것을 철부에서 전오하는 방법이 주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염판으로서 철부나 토부가 아닌 암반을 이용한 제염방법은 일제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한 이후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가령 그렇다고 하면 암반을 이용한 돌소금의 생산은 35~40여년 정도의 기간에 주로 행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오염의 형식에서 천일제염의 형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오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충당이 어려웠거나, 제염도구 중 가마(부)의 입수가 원활치 않았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염 농어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시험적인 제염방법이 널리 수용되면서 토착화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14) ① 건설부·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요람, p.758.

② 오성찬, 1992, 제주도속지명사전, 민음사, p.78.

15) 김상헌, 1602, 남사록(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pp.68-69.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탐라순력도·남환박물, p.121.

17) 조선시대 선조 때의 제주목사(절제사)로, 재임기간은 1573년 6월-1573년 10월로 알려지고 있다.

18) '별방(별방)에서 시작하여 정의(정의)에 이르는 사이에 염전이 수처에 있다'라고 해석된다. 단, 시대적으로 보아 별방은 현재의 구좌읍 하도리이며, 정의는 표선면 성읍리를 가리킨다.

19) 정광중·강만익, 1998, 전계논문, pp.351-379.

20)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 1910, 한국수산지(제3집), 조선총독부인쇄국, p.432.

2. 제염지로서의 특징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장소는 기본적으로 동마을 해안의 공유수면 상에 위치하는 평탄한 암반이며, 지리학적으로 보면, 파식에 의한 파식대의 일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지부의 논이나 밭처럼, 지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²¹⁾. 파식대의 일부인 암반의 전체면적은 대략 800~900평 정도이며, 해안의 동서 길이는 약 500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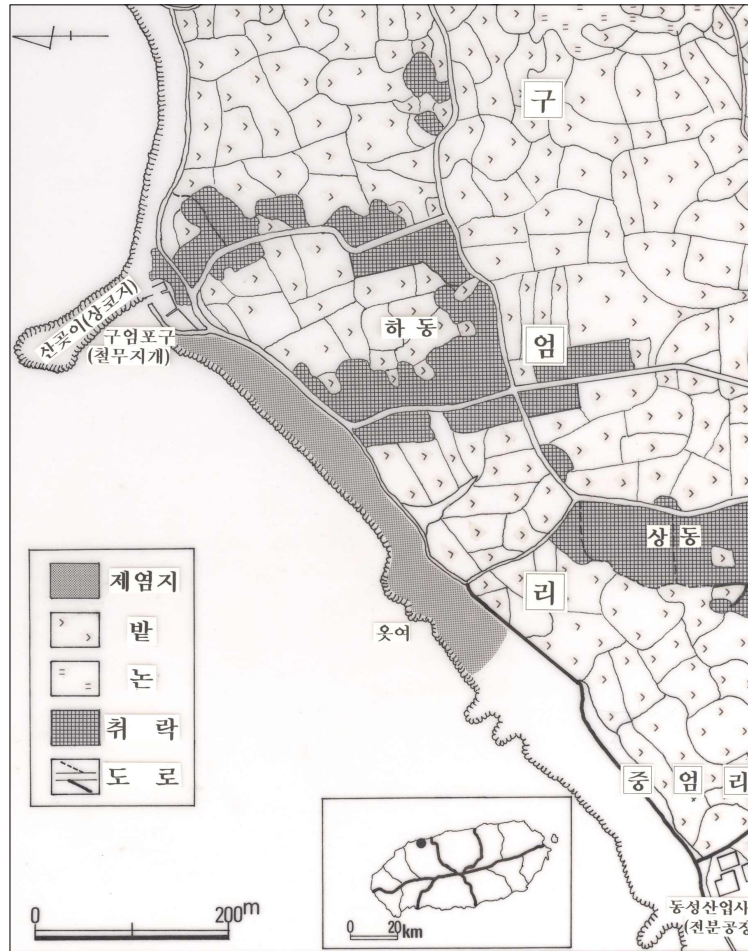
그림 1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구엄마을의 포구를 형성하는 ‘산곶이(속칭, 쇠머리 코지)’에서 인접하는 중엄마을의 해안과 경계선을 이루는 부분까지이다. 과거에는 이 부근에 펼쳐진 암반 면이 소금생산의 장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름철이 되면 부분적으로는(소금을 생산할 수 없는 암반면) 아이들의 수영도중의 휴식처로서, 또는 어른들이 여러 가지 해산물물을 잡거나, 해녀들의 잠수작업 도중에 일시적으로 물으로 올라와 쉬는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금생산을 전후한 시기에는 연안에서 채취한 톨(툇)²²⁾, 우뚝가사리 등의 건조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마을 내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돼지잡기(추렴) 작업²³⁾이 행해지는 등, 그야말로 농어촌 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공동적 소유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이상과 같은 기능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파도에 의해 밀려온 바다 쓰레기들의 종착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돌소금 생산장소인 암반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각 농어가가 개

21) 필자들이 청취조사에서도 물론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가령 당시의 세금관계나 혹은 각 농어가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지적도와는 다른 약식지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차례에 걸쳐 농어가로부터 청취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지도에 가까운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개략적으로 보고한 바 있는 고광민의 연구(고광민, 1994, 생업문화유산,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pp.132-160)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22) 방언으로는 ‘툇’이라고 하며 제주도 인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해초의 일종을 말한다. 톨은 과거로부터 제주도민들에게는 중요한 해산물로서, 특히 여름철 각 가정의 식탁에는 거를 수 없는 반찬거리로 등장한다. 톨은 주로 음력 3-4월경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여름과 가을철에 반찬용이나 제사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제주도의 거의 모든 연안에서는 반양식에 의존하여 생산되며 많은 양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23) 과거 제주도의 해안에 위치하는 마을의 경우는 경조사와 때를 같이 하여, 돼지를 잡기 위하여 대부분 바닷가 부근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것은 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관계로, 잡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돼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나, 현재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경관이다. 그러나 한편, 큰 포구를 끼고 있는 해안마을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아직도 잡은 고기를 건조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 구엄마을의 제염지와 주변의 토지이용
(자료 : 1:5,000 지형도 및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인적으로 소유하여 한 집안 내에 대대로 물려주는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 집안이 소유했던 장소는 소유주의 명의는 바뀐다 하더라도,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점유당하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소유형태는 청취조사에 의거하는 한, 대략 일제말기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진다²⁴⁾.

돌소금을 생산하던 농어가수는 대략 40호 내외이며, 각 농어가 당 소유했던 면적은 대략 20~30평 남짓이다. 그리고 농어가가 소유하던 암반은 10~13개의 절리선(節理線)을 따라 구획되었고, 제염과정에서는 염분농도의 고저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구획의 면적은 대략 2~2.5평 정도가 된다. 10~13개로 구성된 암반면 중에서는 반드시 1~2개가 최종단계에서 제염판²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 제염판의 기능을 갖는 암반

24) 이에 대하여 앞서서 연구한 고광민(1994년)에 의하면, 농어가 사이에서 매매도 이루어진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필자들의 조사에서는 매매를 했던 구체적인 농어가, 또는 그 시기와 관련되는 사실은 얻어낼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기는 조선시대 말기나 일제강점기 초기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제염전용의 암반면으로, 전염염에서 제염용 가마솥(철부)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면은 여러 개의 암반면 중에서 가장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이다. 제염판은 근본적으로 각 암반의 전체면적과 암반표면의 자연적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각 농어가 소유하는 제염판의 크기는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제염과정에서의 시간이나 1회의 제염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가령 매끈한 제염용 암반이 없는 농어가에서는 인근에서 소유하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⁶⁾.

Ⅲ. 들소금의 생산구조 및 특성

1. 제염과정

그림 2는 구엄마을의 들소금 생산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먼저 들소금의 생산은 매년 음력 5월 중순~하순경의 암반²⁷⁾ 청소에서 시작된다. 암반청소는 대개가 한 가구당 한사람이 행하게 되는데, 해수를 떠다가 자신의 생산 터에 쌓여 있던 흙먼지나 각종 오물을 치우는 것으로 끝난다. 물론, 이 때 함수(鹹水)²⁸⁾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토담 함수통(그림 3)²⁹⁾도 깨끗이 한다. 기본적인 청소가 끝나고 1-2일후에, 암반위에 진흙으로 '독(소제방)쌓기'를 한다. 독쌓기는 해수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서 약 10cm가 된다. 독을 쌓는 과정은 암반에 나 있는 타인과의 소유 경계선을 가장자리로 하여, 자신의 생산장소에서는 암반의 절리선을 몇 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누면서 쌓는다. 이처럼 작은 구획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해수를 점차적으로 염도가 높은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암반위의 작은 독에 사용되는 진흙은 소금생산 기간 중에 몇 번이나 손질하게 되나, 우선은 찰기가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 인근 마을인 수산리의 수산봉 주변 혹은 마을내의 논에서 채취한다. 독쌓기가 끝난 다음날 '해수 담그기'를 한다³⁰⁾. 해수의 운반은 주로 양동이를 사용하며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생산장소가 바다 쪽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는 불과 2-3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모든 암반에 해수 담그기를 완료할 수 있지만, 바다 쪽에서 먼 거리인 경우에는 그 만큼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소금 생산터(각 개인이 소유하는 암반)는 약 20~30평 정도이기 때문에, 어른 한사람이 양손으로 해수를 운반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형 양동이로서 15~20회 정도를 왕복해야만 가능하다³¹⁾. 이 정도의 양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생산터의 위치에

26) 1996년 11월 10일 성봉추(여, 63세)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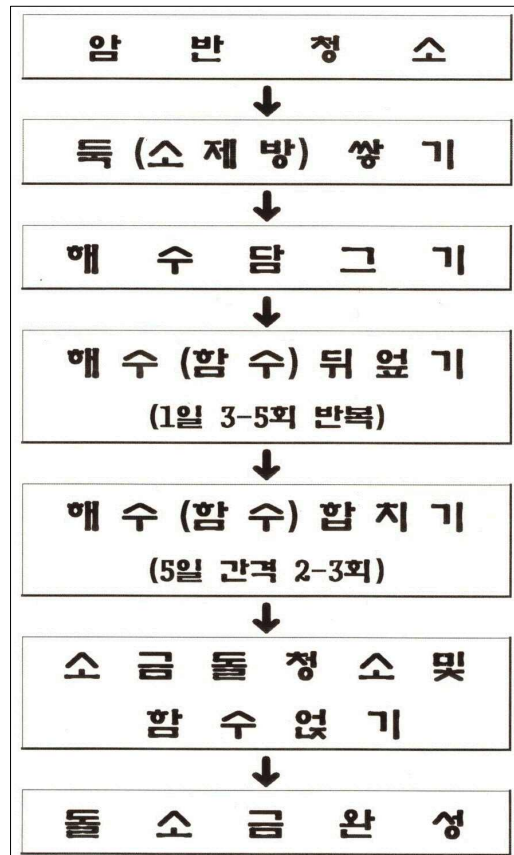
27) 현지에서는 보통 '빌레'라고 하나, 제주도에서의 '빌레'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통명사인 암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8) 염도가 높아진 함수를 보통 '곤물'(간수의 의미)이라 한다.

29) 현지에서는 '혹' 또는 '물혹'이라 부르며, 외부형태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혹'은 제염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보통이다.

30) 진흙을 쌓고 나서 이튿날 바로 해수를 넣지 않으면, 진흙이 건조해지면서 조각조각 떨어져 재차 진흙을 쌓아야만 한다.

31) 실제로는 대형 양동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1회의 1개(한손만 사용)로 하나, 가구에 따라서는 해수를 운반하는 사람의 체력조건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즉, 고령의 로인, 청·장년 및 부녀자의 체력조건에 따라 양동의 크기나 노동시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구엄마을의 제염과정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2시간이며 여름철의 조석현상을 잘 파악한 후 가급적 만조 시에 물뜨기 작업을 해야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³²⁾.

해수 담그기가 끝나는 이후부터 하루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5~6회를 주기로 하여 해수를 암반면의 말라 있는 부분 쪽으로 적시듯이 계속해서 걸어 올린다. 이러한 작업은 속칭 ‘물지치기’라 하는데, 이는 하루 중 가장 일조량이 많은 11~2시 사이에 행해진다. 암반면은

32) 권혁재(198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석은 하루 동안에 만조와 간조가 두 번 반복되는 반일 형이며, 달의 운동과 관련하여 만조와 간조의 시간차는 매일 50분씩 늦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음력 날짜로 판단할 때, 가장 물이 밀려나는 ‘사리’ 때 즉 음력 2일과 17일(여덟 물), 3일과 18일(아홉 물), 4일과 19일(열 물)은 해수의 운반작업은 가장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권혁재, 1987, 『한국지리』, 범문사, p.93).

과도에 의하여 침식당한 파식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바다 쪽을 향해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암반면의 해수는 한쪽 면으로 치우쳐 햇볕에 노출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암반에 있던 해수가 점점 염분의 농도를 더해감에 따라, 대략 10-13개의 암반에 분산되어 있는 해수를 4-5개의 암반으로 이동시켜, 같은 염도의 해수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업이 뒤따르며, 본 단계는 각 암반에 해수를 담그고 약 5일 정도가 경과한 때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 부터는 염도가 높은 함수가 되는 것이다. 염도가 높은 함수를 현지에서는 '곤물'이라 하며, 이 단계에서부터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곤물(함수)은 귀중하게 다루어지며, 매일 매일의 날씨를 점검하여 흐리거나 비가 올 확률이 농후한 때에는, 미리 함수통에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그리고 이미 비어 있는 암반에는 새로운 해수를 운반하여 담가 놓는다. 결과적으로 해수가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한 후, 염도가 높은 함수로 변하면 계속적으로 한곳으로 모으고, 반면에 다른 쪽 암반에는 다음의 소금생산을 위해 새로운 해수를 채워 놓게 되는 것이다.

결국 10~13개의 함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단계적으로 암반 2~3개의 양으로, 그리고 1개의 암반에 필요한 양만큼 압축되며, 1개로 모아진 이후에도 2~3일간 염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윽고 계란을 사용하여 염도를 측정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함수통에 1일간 재운다. 이 단계에서 염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1~2일간을 그대로 두게 된다³³⁾. 이렇게 하여 함수통에 보관했던 함수는 이튿날 정오를 중심으로 제염판(製鹽板)에 꺼내어³⁴⁾, 최종적으로 제염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제염판에서는 함수를 약 3cm 정도의 높이로 재운다. 그리고 제염판에서의 제염시간은 일조량이 많은 날을 선택하는 경우에 3~4일, 하루라도 흐린 날씨가 끼게 되면 4~5일 정도가 경과한 후에 완전한 소금의 결정체를 얻게 된다.

돌소금의 생산량은 전술한 것처럼 각 농어가 소유하는 제염판의 크기와 암반의 상태가 균등하지 않은 관계로, 일률적으로 서술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각 농어의 청취조사에 근거를 둔다면, 약 1.5~2평의 제염판인 경우 1회의 생산량은 약 2~2.5말 정도로 산출된다. 생산된 돌소금의 질은 특별히 상품과 하품 등으로 구별하는 일은 없다. 단지, 자칫 잘못하여 흐린 날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금자체에 윤기가 나지 않고, 소금 결정체인 알맹이가 작아 상품으로 적당하지 않을 경우도 생긴다. 다시 말하여, 소금 알맹이가 작으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양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금 알맹이의 윤기나 크기를 고루 갖추기 위해서 농어가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염판에 얹히는 날의 오전 10시 정도에 기상조건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업 마을의 돌소금 생산은 해수→함수→제염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여름철의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아주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생산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반도부의 여러 제염지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3) 여러 개의 암반에 있던 함수를 1개의 분량으로 줄여가지만, 이 함수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 짧은 시간안에는 쉽게 염도가 높아지지 않으며, 각 농어가에서는 날씨조건에 따라 날짜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34) 이 과정을 현지에서는 '곤물 얹히기'라 한다.

2. 일부 농어가에 의한 전오염 생산

전체적으로 구엄마을의 제염은 해안가의 암반을 이용한 극히 소규모적인 천일제염의 형태이지만, 일부 제염 농어가 중에서는 주로 12~2월의 겨울철에 전오염을 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구엄마을 제염 농어가의 약 40호 중에서 전오염을 행하는 농어가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들의 조사에서는 약 5~6호로 확인되었는데, 그것도 꾸준하게 매년 행하는 것은 아니었다³⁵⁾.

전오염 생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의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내에 대규모적인 천일제염의 형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요 염전들이 해안선의 굴곡여부나 조석간만의 차이 등 자연적 조건과 함께, 반드시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였다³⁶⁾. 이처럼 전오염의 생산체제에서 연료취득의 문제는 제염과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해결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구엄마을의 전오염 생산의 특징도 바로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어가가 주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전오염 농어가는 대부분의 일정면적의 임야를 가지고 있었던 농어가라는 사실에 공통점이 있다.

전오염의 생산 농어가는 본격적인 돌소금의 생산시기에 가급적 해수를 함수로 만드는 작업에 충실하였다가, 암반위에서의 제염작업이 종료되고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하여 전오염을 생산하였다. 전오염의 작업공간은 집안내의 부엌이나 창고이며, 이용된 가마(부)는 둥그런 무쇠 솥이거나 드림통을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무쇠 솥의 부피는 대개가 3말들이로서, 함수를 넣고 장작불로 약 12시간 정도를 지피면 소금 결정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농어가는 전오염의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자가 소유의 임야는 물론 마을 공동소유의 임야로부터도 연료를 확보해 놓았다³⁷⁾. 요약하자면, 전오염 생산 농어가는 가족 노동력이나 자금투자의 능력여하에 관계없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연료를 자가 소유의 임야나 공동소유의 임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중요하였다.

3. 주요 제염도구와 용도

돌소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염도구를 보면, 구엄마을의 제염방법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제염도구는 함수통이라 할 수 있는 '물혹'(또는 혹, 그림 3)³⁸⁾과 그 외의 도구로 양분할 수 있다. 먼저, 물혹은 몇 단계에 걸쳐 염도가 높아진 함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소금 결정체를 얻기 전에 오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이것은 특히 염전이라고 하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제

35) 1996년 11월 16일 성무부씨(남, 60세)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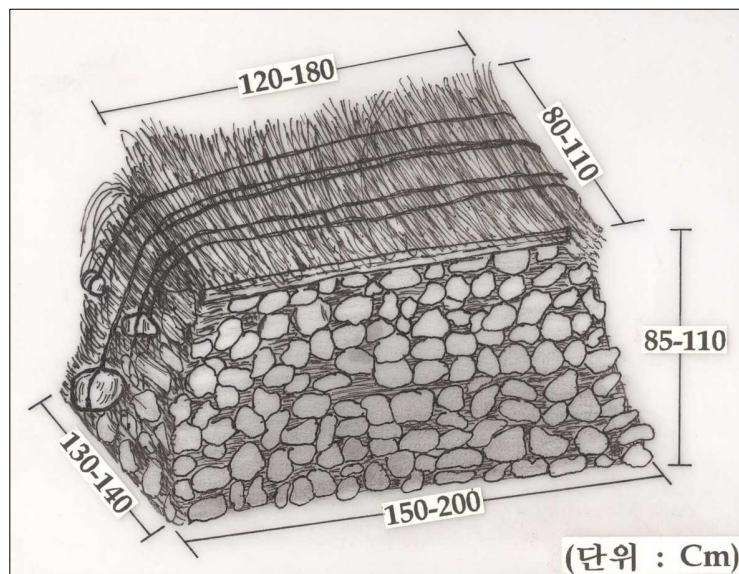
36) 김호중, 1984, 전계논문, pp.147-175.

37) 구엄마을 공동소유의 임야는 마을 중심부로부터 한라산 쪽을 향하여 직선거리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속칭 '자그네미'라고 불리는 곳이다. 당시 공동소유의 임야는 정기적으로 늦가을 경에 간벌 및 정리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작업에 참여한 농어가는 취사용 연료를 분배받을 수가 있었다. 이곳은 대부분이 송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구엄마을의 공동묘지로 바뀌었다.

38) '혹'은 속칭인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보를 얻지 못하였다.

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외부형태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사각형을 취하고 있으며 대략 농어가 당 2~3개를 준비하였다. 제염 농어가 소유하는 2~3개의 물혹 중에서 반드시 1개는 부피가 작은 것을 설치하여, 가장 염도가 높은 함수를 저장하는데 사용하였다. 혹의 설치는 제염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하게 되는데, 진흙에 물을 혼합한 후 직사각형의 벽돌형태로 만들면서 쌓아 올린다. 그리고 2~3개의 물혹을 축조하는 데는 약 7~10일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물혹의 재료가 수분을 포함한 점토성 진흙이기 때문에, 높이를 더해 가면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으로, 하루에 축조하는 높이를 대략적으로 정하여, 축조한 부분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재차 쌓아 올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물혹의 설치장소도 함수를 저장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밑바닥이 암반이어야 하며, 갑작스런 강수현상 등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돌소금의 생산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함수통(물혹)의 형태 및 규격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바닷가에 연해 있는 제염장소는 파도에 의하여 물혹의 파괴될 수 있었던 관계로, 멀리 떨어진 도로변 쪽이나 다른 장소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는 해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편리하나, 함수를 물혹으로 운반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소 불편하였다. 물혹의 중요한 역할 중 다른 하나를 지적하자면, 휴식공간으로서의 음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여름철에 해수를 함수로 만드는 작업과정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음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시간대에 따른 물혹의 그림자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이점은 한여름에 정오를 정점으로 하여 가장 일조량이 많은 시간대를 연상한다면, 나무가 전혀 없는 해안가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혹 이외의 제염도구로서는 제염과정에서 해수를 길어 나르는 대소의 양동이, 암반에서 암반으로 함수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좁팍'³⁹⁾, 해수나 함수를 깨끗이 쓸어내는 대나무 빗

자루, 그리고 집까지 운반할 때 사용하는 죽재 바구니 등이다. 이들은 특이한 도구가 아닌 만큼, 구태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려 된다. 이들 도구 중에서 빗자루나 죽재 바구니 등은 자가에서 제작하고, 좁팍과 양동이는 마을 내 혹은 오일장을 통해서 구입하였다.

이처럼, 극히 단순한 몇 개의 제염도구와 시설만을 필요로 하는 돌소금 생산에서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워진 자연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측면이 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점은 이미 전술한 것처럼, 구염마을의 제염이 최초단계에서부터 경제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4. 판매과정

해안가에서 생산된 돌소금은 우선 죽재 바구니나 비닐(Vinyl)성 자루⁴⁰⁾에 넣어 등짐으로 집까지 운반한다. 돌소금은 아직 물기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짚으로 엮은 가마니에 넣어 물기를 빼야 한다⁴¹⁾. 대개 마당은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빨랫감을 널어놓는데 이용되고 평소 아이들의 노는 장소로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보관은 보통 가족들의 출입이 잦지 않은 음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장소로서 주로 창고나 외양간(쇠막)의 한쪽 구석진 공간이 택해진다. 외양간에서는 소금가마니 밑에 나무토막을 평행하게 놓고, 그 사이로 물기가 빠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든다. 특히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외양간을 당연시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짠 소금기가 우분과 혼합되어 양질의 거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된 돌소금의 판매시기는 일정치 않으나, 그 주된 시기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의 초겨울이다. 이 기간은 많은 농가가 장 담그거나 혹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대량의 소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소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직접 구염마을로 사러오기도 한다. 돌소금을 판매하는 마을까지의 운반은 대부분 사람의 등짐이나 우력을 이용한다. 소금 운반시의 특징은 부피와 무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인력에만 의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제염 농어가에서는 판 매시에 우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염시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며칠간에 걸쳐 많은 양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경우,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는 셈이다. 더욱이, 당시의 소금은 금전수수에 의하여 판매하는 형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물교환에 의존하고 있었던 관계로 판매행위가 끝나고 귀가할 때면, 소금에 못지않게 무거운 보리, 조, 콩 등의 농산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여 판매할 경우는 도중에 교환한 농산물의 양도 비례하여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는 판매하는 마을의 특정농

39) 원래는 제주도 전역에서 곡식 가루 같은 것의 분량을 되거나 또는 곡식을 담고 풀 때 쓰는 나무 그릇의 하나로, 통나무의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깎아내어 만든다(제주도, 1995, 『제주어 사전』, p.506).

40) 1940~5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비닐성 자루조차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당시 농협으로부터 마을단위로 화학비료를 공급받았을 때의 것으로서, 각 농어가에서는 재분배된 화학비료를 전부 사용하고 난 후에 비로소 비닐성 자루를 돌소금 운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41) 물기를 빼는 데에도 15~2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돌소금의 판매가 빠른 농가의 경우도 제염후 한 달 이후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게 하였다⁴⁴⁾.

구엄마을의 제염 농어가는 소금을 판매하러 떠나기 전에 대략적으로 대상취락을 설정하게 된다. 즉, 두 방향 중에서 일차적으로 남동방향이나 남서방향의 마을을 선택하여 판매에 나섰다. 즉, 두 방향 중에서 일차적으로 남동방향이나 남서방향의 마을을 선택하여 판매에 나섰다. 다음번의 판매노정은 반대방향을 결정하였다. 결국 이들 마을은 홀·짝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나, 1회의 판매노정에서 중단된 마을을 다음 차례의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점은 교통이 불편하고, 거의 모든 도로가 자갈로 뒤덮여 있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당연지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1회의 판매량도 출발 전에 대략 판매노정에 맞추어서 산정하였다.

한편, 단순히 인력에만 의존할 경우는 소금의 판매노정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2~3개 정도의 취락만을 선택하여, 판매노정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모녀가 한 짝을 이루거나, 같은 마을의 부녀자들끼리 한 짝을 이루어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구엄마을의 제염 농어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당일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가장 큰 염전을 이루고 있었던 종달마을이나 일과마을의 제염 농어가에서는 숙박을 행하며 판매하러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⁴⁵⁾.

부녀자들이 소금판매에 나설 때에는 대개 죽재 대바구니에 소금과 함께 양을 재는 '되'와 교환한 농산물을 넣기 위한 빈 자루를 가지고 출발한다. 남성을 동반하고 우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의 등 양쪽으로 새끼로 꼬인 자루(떡동구미, 속칭 '땡'이라 함)에 소금을 넣어 걸친 후, 또한 소를 이끄는 주인 자신도 등에 지어 운반한다. 소금과 농산물을 교환할 때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양자 사이에서 특정 농산물로 결정한다. 따라서 소금을 구입하는 농가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보리나 조를 많이 재배했다거나, 혹은 소금의 구입시점에서 보리 및 조 이외의 농산물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소금 판매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판매자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주로 보리나 조) 만을 수락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금 판매자 역시도 농촌의 실상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관계는 이미 송성대가 지적한 것처럼⁴⁶⁾, 제주도가 반도 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환경적인 특성을 지역주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제주도는 과거로부터 척박한 화산회토로 인하여 1년간의 농사를 지어도 대가족의 끼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나아가 농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들이 만족스럽게 보급되지 않던 상황 하에서의 물물교환 조건은 어느 한쪽 입장만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상시의 생활에서 수없이 경험해 온 것이다.

IV. 돌소금의 생산중지와 그 후의 변화

44) ① 龜井千歩子, 1979, 鹽の民俗學(東書選書 35), 東京書籍株式會社(日本 : 東京), 237p.

② 富岡儀八, 1983, 鹽の道を探る(岩波新書), 岩波書店(日本 : 東京), 228p.

45) 1997년 2월 종달리 이장인 김모씨(60세)와 동년 3월 일과리 거주의 박모씨(여, 80세)로부터의 청취조사 결과이다.

46)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도서출판 제주문화, 466p.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은 1950년을 전후하여, 완전히 소멸되었다. 돌소금 생산의 중단 시기는 결국 제주도내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소금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었던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실제로, 구엄마을 뿐만이 아니라, 도내의 유수한 제염지들이 때를 같이하여 소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제염생산 활동의 중단과 함께 농어가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본 장에서는 돌소금 생산중단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변화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1. 농어가의 경제적 변화

돌소금 생산의 중단이후 구엄마을의 농가경제는 적어도 자료상 혹은 청취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크게 지적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돌소금 생산 장소가 평상시의 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것 자체를 하나의 자본성 토지로 생각하여 매매를 했다거나, 혹은 돌소금 판매를 통하여 눈에 떨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돌소금 생산 장소인 암반은 자연적인 환경이 안겨다 준 부산물이었다는 점과 함께, 조금이나마 당시의 생활고를 덜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었다는 성격이 강하였다.

결과적으로 돌소금 생산중단이 농어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돌소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제염 농어가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하여 염전을 관리·유지해 왔던 것도 아니었으며, 동시에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가옥이나 토지, 선박(테우, 덕판배 등) 등 부동산을 사들일 정도로 고정적이고 막대한 수입원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의 제염 농어가로부터 청취한 조사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돌소금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작은 이익이 일가족의 세 끼니를 충족시키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구엄마을의 서민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돌소금의 생산중단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일 뿐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제염 농어가는 수입원의 감소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한 시대의 흐름'으로서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염중단이라는 변화에 대하여 제염 농어가들이 유순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제주도내에는 전남의 진도나 해남 등지로부터 다량의 소금이 수입,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⁴⁸⁾.

2. 최근의 마을 변화

돌소금 생산중단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약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도 구엄마을에 이렇다 할 정도의 경제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점은 구엄마을 뿐만 아니라, 삼엄이라

47) 정광중·강만익, 1998, 전계논문, pp.351-379.

48)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 1910, 전계서, p.430.

일컬어지는 인근마을인 중엄마을과 신엄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인근마을의 경제적인 변화는 오히려 신엄마을에서 분리된 용흥마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그것은 1960년 중반 경 몇 개의 독농가에 의하여 도입된 밀감재배였다⁴⁹⁾.

그러나 1980년대에 돌입하면서 구엄마을을 비롯한 중엄 및 신엄마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참외, 수박, 오이 및 양배추 등 상품작물이 도입이었다. 이들 농작물의 재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대단위 영농의 형태로 집단화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수산지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0년 이후부터 구엄마을의 경우는 로지작물인 수박, 참외(여름), 양배추(겨울) 이외에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오이와 토마토 생산으로 특화해감으로써, 중엄 및 신엄마을과는 다른 경제성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상품작물의 도입과 산지로서의 성장은 이들 삼엄마을에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에 힘입어 아파트 단지가 급속히 증가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때를 같이하여, 제주관광정책의 활성화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구엄마을을 중간 경유지로 하는 새로운 해안도로가 건설되었다⁵⁰⁾. 1950년대 초 돌소금 생산이 중단된 이후 구엄마을에는 그야말로 숨 가쁜 변화의 물결 속에 뒤덮이게 된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제주관광의 효과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한동안 잊혔던 과거유산에 대한 복원사업이 군 단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구엄마을에서는 1996년 6-8월에 마을 어촌계의 지원비 300만원과 군 지원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돌소금 생산지의 일부를 복원하였다⁵¹⁾. 또한 관광객들이 소라, 고등, 문어 등 해산물의 채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체험장소」도 설치하였다⁵²⁾. 돌소금 생산지의 복원과 더불어 당초의 목적은 마을 어촌계에서 직접 돌소금을 생산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작물의 생산에 따른 고정적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최근에 잦은 해수의 범람 등으로 현재까지 목적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도로의 건설과 새로운 해안경관의 정비에 힘입어, 제주시로부터 가까운 구엄마을에는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젊은 남녀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정착돼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지는 약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 신선한 관광지의 경관구성요소로 부각됨과 동시에, 마을주민들에게는 과거의 어려웠던 삶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재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49) 1940년대만 하더라도 구엄, 신엄, 중엄 및 용흥마을은 구엄과 신엄의 두 마을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에도 구엄국민학교 및 신엄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 마을 간을 연결하는 지역 단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권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인근마을의 변화에는 서로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50) 해안도로는 기존의 일주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제주 해안관광의 시대를 기대하고자 1990년 6월 30일부터 1996년 11월 27일에 걸쳐 연차적으로 건설되었다. 구엄마을을 관통하는 해안도로는 하귀에서 시작하여 구엄, 중엄, 신엄 및 고내를 걸쳐 애월마을까지 약 10km 정도 이어진다(1997년 12월 5일, 북제주군청과의 전화문의에 의함).

51) 1996년 12월 23일 구엄리 어촌계장 조두현씨(남, 71세)로부터의 청취조사에 의함.

52) 관광체험장소도 같은 해에 5,000만원(마을 어촌계 2,000만원, 군지원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조, 진입로 건설, 가로등 설치, 입간판 및 해녀상 설치 등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과거 제주도의 특정취락 내에 존재하던 소규모의 염전을 배경으로, 역사적, 공간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소금생산과 판매, 생산의 중단에 따른 농어가와 마을의 변화를 논의삼아 검토·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작은 지역단위에서 전개되는 지리적 현상을 부분적인 단면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 마을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미세지지의 접근방법을 원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로, 구염염전은 사료에 기초할 때, 전오염 형태에서 천일염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오염을 생산하던 시기는 조선시대 말엽에서 1910년 이전에 해당되며, 일제가 본격적으로 강점한 이후에는 과식대의 암반을 이용한 천일염의 생산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천일염의 생산형태는 반도부의 대형염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가족 노동력과 자연적인 암반면 만을 이용한다는 데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오염 생산에서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함수는 암반위에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오염의 생산형태에서 천일염 생산형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제염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염 가마의 불비와 함께 연료취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돌소금 생산은 최성기에 약 40호에서 가구당 20-30평 정도의 규모로 행해졌으며, 1950년을 전후하여 반도부로부터 많은 양의 천일염이 수입됨으로써 완전히 중단·소멸되었다. 이처럼 구염마을에서는 극히 소규모로 제염활동이 행해졌으며, 제염단계에서도 아주 단순한 몇 개의 도구만을 사용하는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셋째로, 돌소금의 판매지역은 주로 중산간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판매방법은 잡곡과의 물물교환방식이 주가 되었고, 극히 일부가 화폐에 의한 판매를 취하고 있었다. 돌소금 판매지역까지의 운반에는 주로 부녀자들의 등짐을 이용하거나 소와 말의 축력을 이용하였다. 돌소금의 판매에 이용된 도로는 현재 대부분이 포장되어 중산간 지역의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소금을 통하여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과의 사회적·경제적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넷째로, 돌소금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농어가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돌소금 생산 그 자체가 지리적 환경이 가져다 준 부산물이었다는 배경도 있었지만, 주로 물물교환에 의하여 판매되던 이익이 실생활에서의 생계비에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소금의 생산은 어디까지나 발농사 이외에 얻어낼 수 있는 생활의 보조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돌소금의 판매결과, 현금화에 의한 부의 축적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확실시된다.

다섯째로, 돌소금 생산이 중단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구염마을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보리, 조, 콩, 고구마, 유채재배 등 주로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이후 수박·참외·오이 및 양배추(겨울) 등 상품작물의 도입은 물론, 제주시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는 영향을 받아 주택단지의 건설 및 해안도로의 건설 등으로 마을 전체가 변모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별

농어가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가의 상승에 따라 농경지의 상대적인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과거의 돌소금 생산 터인 암반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는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 것이다. 즉, 관광객들에게 해안 산책로와 체험관광의 장소로서 제공되는 한편, 구엄마을의 역사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